

“불법파견·복수노조 악법 폐기 투쟁 시작한다”

8일 금속노조 결의대회 ... 22일 현대차 본사 결의대회, 7월 18일 주 1차 총파업 전술 논의

금속노조가 7월 총파업을 앞두고 투쟁의 엔진을 돌리기 시작했다.

노조는 6월 8일 서울 남대문 옆 대한상공회의소 앞에서 ‘비정규직 철폐, 불법파견 범죄자 처벌, 복수노조 창구 단일화 폐기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열



고, 용산 대통령실 앞까지 행진했다. 노조는 불법파견 범죄자 정의선 현대차 회장 등의 처벌을 촉구하는 서명지를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전달했다.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노동자가 노동자로서 권리를 지키기 위해 헌법이 보장한 노동 3권에 따라 민주노조를 만들었지만, 자본가들은 복수노조 강제 창구단일화라는 노동악법을 이용해 노조할 권리를 철저히 유린하고 있다”라고 규탄했다.

윤장혁 노조 위원장은 “자본가들은 윤석열 정권에 편승해 노동자들이 신규 노조를 만드는 족족 복수노조를 만들고, 이런 추세가 전국으로 번지고 있다”라며 “더는 이 노동악법을 그대로 두고 살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윤장혁 위원장은 “대한민국 재벌은 불법파견 노동자를 고용해 상상하기도 힘든 수익을 올렸다”라면서 “대한민국은 현대차그룹이 수만 명의 비정규직을 불법으로 고용해도 처벌하지 않는 나라다”라고 개탄했다.

윤장혁 위원장은 “불법파견을 금속노조의 양심으로 용인할 수 없다. 노동 3권을 짓밟는 교섭창구 강제 단일화 악법을 금속노동자의 양심으로 용인할 수 없다”라며 “오늘 결의대회는 불법파견 철폐와 복수노조 악법 폐기 투쟁을 시작하는 대회다”라고 선포했다.

윤장혁 위원장은 “7월 총파업 전선을 함께 만들자. 노동자의 문제는 노동자 스스로 거대한 투쟁을 조직해 해결해야 한다”라고 호소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금속노조 노래문선대와 금속노조 율동문선대가 힘차고 아름다운 공연으로 투쟁의 열기를 높였다.

대회를 마친 금속노동자들은 수십 개의 만장을 앞세우고 남대문과 서울역, 남영역

삼거리를 거쳐 용산 대통령실 근처까지 행진했다.

금속노조 중앙집행위원회는 7월 18일 주 1차 총파업 전술 논의에 들어갔다.

노조는 6월 13일부터 일주일 동안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폐기 권역별 상경투쟁을 벌인다.

노조 부품사 전체 지회장들은 6월 22일 대통령실 앞에서 노동중심 산업 전환 노정교섭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금속노조는 6월 22일 서울 양재동 현대자동차그룹 앞에서 ‘재벌독점 타파, 총고용 보장,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산별교섭 제도화 쟁취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연다.

금속노조, 윤석열 정부에 직접 교섭 요구

“노동중심 산업전환 실현 노정교섭 나와라” ... 6월 29일 한덕수 총리와 교섭 제안

금속노조 중앙집행위원회 위원 전원이 윤석열 정부를 향한 요구안을 발표하고, ‘노동중심 산업전환 실현 노정교섭’을 6월 29일에 열자고 촉구했다.

금속노조가 6월 7일 서울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노동중심 산업전환 실현을 위한 금속산업 노정교섭 요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 금속노조 중앙집행위원들이 참석해 지역별·산업별 대정부 요구안을 발표했다.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은 “산업전환기 지속 가능한 제조업 전망과 노동자 미래 대책 수립을 위해 정부에 노정교섭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다”라며 “금속노조 중앙집행위원 전원은 오늘 정부에 노정교섭 요구를 담은 문서를 전달한다. 오는 29일 금속노조 위원장과 국무총리가 마주하는 노조와 정부의 교섭을 공식 제안한다”라고 밝혔다.

윤장혁 위원장은 “산업전환 과정에서 일자리 문제를 시장 자율에 맡기면 대량실업과 저임금 불안정 노동이 확산하는 등 사회 부작용이 발생한다”라면서 “금속노조는 국제협약과 국내법이 명시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정부가 한국의 금속산업에 제대로 실현할 수 있을지 우려가 크다”라고 꼬집었다.

지난 2015년 UN 기후변화회의가 채택한 파리기후협약 전문은 ‘노동력의 정의로운 전환’의 필요성을 명시하고

있다. 2021년 국회가 제정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도 “탄소중립 사회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볼 수 있는 취약한 계층·부문·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한다”라는 기본 원칙을 두고 있다.

윤장혁 위원장은 “현재 노동을 철저히 배제한 채 재벌 주도로 산업전환을 진행하고 있다”라며 “글로벌 스탠다드와 법치를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가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 한국 제조업 전망과 노동자의 미래를 여는 노정교섭을 거듭 요구한다”라고 역설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금속노조 3대 의제, 대정부 7대 요구’에 관한 지부장 발언이 이어졌다.

▲홍진성 기아자동차지부장은 ‘재벌·대기업 책임을 강제하는 정부 역할’ ▲최용규 울산지부장은 ‘양질의

일자리 확보’ ▲안현호 현대자동차지부장은 ‘고용안정과 노동의 대등한 참여 보장’ ▲이규선 경기지부장은 ‘재벌독점 해소’ ▲정병천 현대중공업지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등을 요구했다.

금속노조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노정교섭 요구서를 국무총리실에 전달했다. 교섭요구서는 권수정 금속노조 부위원장과 김상민 금속노조 정책실장이 직접 전달했다.

금속노조는 교섭요구서를 통해 “6월 29일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직접 만나길 희망한다”라며 ‘3대 의제’와 ▲‘정보공유’나 ‘의견수렴’ 수준이 아닌 노동의 대등한 참여를 보장하는 협의 구조 구성 ▲총리실과 중앙 정부 유관부처와 금속노조 협의 구조 우선 구성, 추후 업종별·지역별 협의 등 ‘교섭구조 구성안’을 함께 전했다.